

## 유배일기 서두의 내용상 특징 연구\*

조수미\*\*

### 〈차 례〉

1. 서론
2. 유배일기 서두의 내용 구성
  - 1)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
  - 2) 출사 내력
  - 3) 유배 출발 직전의 혼란
3. 결론

### 〈국문초록〉


유배일기는 유배라는 비일상적 사건으로 촉발된 기록자의 발화 욕구와 기록 욕구로 인해 탄생한 글로서, ‘서두-유배 노정-유배지 생활-해배 노정-결미’라는 5단계 구성을 보인다. 이 가운데 서두는 유배된 정황과 유배를 대하는 기록자의 태도 등 유배일기 저술의 의도와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유배일기의 서두를 밝히는 것은 유배일기라는 기록물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서두에 나타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은 정치적 음모와 부당한 절차,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드러낸다. 둘째, 문과 급제와 관직 생활, 임금의 은혜 등을 간략히 회고하는 ‘출사 내력’이 덧붙여져, 유배인이 임금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유배지가 정해진 뒤 준비도 채 못 한 채 떠나야 하는 혼란, 가족·지인의 눈물 어린 전별 장면 등은 유배의 시작을 극적으로 형상화하며, 유배인을 죄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동정과 연대를 받는 인물로 그려낸다.

결국 서두는 언제나 ‘왜 유배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을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3S1A5B5A17084937)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중심축으로, ‘출사 내력’, ‘출발 직전의 혼란’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서두의 내용들을 통해 유배일기가 겉으로는 일기라는 사적 기록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독자를 강하게 의식한 공적 발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두의 내용은 기록자 자신만을 위한 자족적 회고라기보다 후손과 가문 외부의 독자를 상정한 가운데 유배의 억울함과 자기 정당성을 변론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반한 서술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유배일기 서두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배객의 ‘무고함’, ‘죄 없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배일기는 사적 글쓰기인 ‘일기’라는 외양과 달리, 후손을 포함한 독자를 상정한 글쓰기의 결과물이자, 유배인의 자기 정당화를 전략적으로 서술하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배일기, 5단계 구성, 서두,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 출사 내력, 유배 출발 직전의 혼란

## 1. 서론

본 연구는 유배일기 작품군의 서두를 탐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두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 인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배일기 작품군의 형식과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얻고자 한다.

유배일기를 쓰고자 하는 욕구를 촉발하는 자극은 일차적으로는 외부에서 주어진다. 당연히 유배라는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배일기를 만들 어내고자 하는 욕구도 발생하는 것이다. ‘유배’는 유배를 겪는 당사자의 근본적이면서도 자연발생적인 욕구, 즉 발화의 욕구와 기록의 욕구를 촉발 하여 유배일기라는 기록물을 발생시킨다. 유배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닥 뜨리게 되었을 때 유배인은 그 충격을 표현하고자 하는 발화의 욕구를 느 낐는 것이다. 이 발화의 욕구는 유배인이 유배일기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일차원적이고 즉각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후손이나 주변 사람에게 유배의 실상과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욕구, 즉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기록의 욕구가 더해진다. 즉, 유배일기는 유배라는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발화의 욕구와 기록의 욕구로 인해 완성되는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배일기는 그 명칭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생활 못지않게 자신을 유배시킨 정적(政敵)에 대한 적의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하소연이 많이 서술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유배일기를 읽어보면 의외로 그런 내용이 예상보다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유배에 대한 정치적 서술, 즉 유배가 발생하게 된 이유나 정황 등에 대한 서술은 일기의 서두에 집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유배일기의 서두에는 유배라는 충격적 사건의 발생과 원인 및 유배를 대하는 기록자의 태도 등이 집약적이고도 인상적으로, 직접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유배일기의 서두 부분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유배일기라는 기록물의 성격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일기 연구는 최강현이 <북관노정록>을 소개한 것으로 일찌감치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혔다.<sup>1)</sup> 유배일기 작품은 황위주<sup>2)</sup>, 최은주<sup>3)</sup>의 선행 연구와 김미선<sup>4)</sup>, 박현순<sup>5)</sup> 등 이후의 연

- 
- 1) 김정운, 「조선시대 일기자료와 연구동향」, 『영남학』 72, 영남문화연구원, 2020, 30쪽.
  - 2)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63~910쪽.
  - 3) 최은주, 「조선조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5~40쪽;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배일기 자료의 현황과 활용 가치」, 『안동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393~364쪽.
  - 4)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 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517~533쪽.
  - 5)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 쓰기」, 『한국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73~118쪽.

구자들이 제시하는 목록을 포함하면 대략 40~50여 편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유배일기와 관련된 많은 연구는 작품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작품이 수록하고 있는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유배지에 대한 인문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배형의 실상 및 유배인의 생활에 대해 고증하는 자료로 다루거나, 당대 조선 사회를 증언하는 사회문화적 사료(史料), 특정 사건에 대한 방증 자료 등으로 유배일기를 다루고 있다. 유배일기와 관련한 문학적 논의의 중심도 시조와 한시 등 정통 시가 장르의 연구에 있다. 유배일기에 삽입된 유배시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하거나, 특정 작가가 엮은 시문집을 논의하기 위한 방증 자료로 일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유배일기는 시대를 증언하는 일종의 사료로, 혹은 다른 장르의 작품을 분석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다루어져 온 것이다. 요컨대 ‘유배일기’라는 명칭은 유배일기 작품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작품이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소재)에 따라 편의상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배일기는 유배라는 특별한 경험을 담아내기 위한 나름의 관습을 구축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유배일기는 유배라는 특별한 경험을 기록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독자적 형식과 성격을 갖춘 독자적 작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배일기 서두의 내용상 특징을 살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유배일기의 독자적 형식과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 특히 서론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배일기 저술 의도가 가장 집약적으로 기술된 부분이므로 유배일기의 문학 관습적 성격을 밝히는 기초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유배일기 가운데 서두가 뚜렷해 분석에 적합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서두의 내용상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 2. 유배일기 서두의 내용 구성

유배일기는 작품의 시작과 끝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완결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기를 시작하는 계기와 종료하는 계기 및 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배일기는 유배라는 사건을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므로 일기를 시작하는 시점은 유배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일기를 종료하는 시점은 유배가 종료되는 시점인 경우가 많다. 구성적 측면에서 유배일기는 실제 유배 경험과 동일하게 전개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유배라는 특수한 경험이 유배일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배일기의 내용상 일정한 흐름, 즉 구성은 대개 ‘서두 - 유배 노정 - 유배지 생활 - 해배 노정 - 결미’의 5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서두’는 유배지를 향해 출발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에 해당하고, ‘유배노정’은 유배지를 향해 출발한 시점부터 유배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의 내용이 해당한다. ‘유배지 생활’은 유배지 도착 이후부터의 기록이고, ‘해배 노정’은 유배에서 풀려나 집(고향)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집에 도착한 순간까지의 내용이며, ‘결미’는 집(고향)에 도착한 이후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구성 단계의 대략적 모습은 다음과 같다. ‘서두’에는 주로 유배형이 확정되고 유배지가 정해지기까지의 일들이 서술된다. 가령, 유배의 빌미가 되었던 상소문의 내용이나 국문의 과정, 유배지가 결정되기까지의 논란 등이 설명되어 있다. ‘유배 노정’과 ‘해배 노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실적 기록이라는 일기의 형식에 비교적 충실하다. 날짜별로 이동 거리, 머물렀던 역참의 이름, 날씨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편인데, ‘유배 노정’에 비해 ‘해배 노정’이 대개 분량이 매우 짧은 편이다. ‘유배지 생활’을 기록한 내용은 ‘유배 노정’과 ‘해배 노정’에 비교하면 기록일이 촘촘하기보다는 다소 느슨한 편이다. ‘유배 노정’과 ‘해배 노정’이 거의 매일의 기록을 남기는

편이라면, ‘유배지 생활’은 며칠씩 건너뛰거나 심지어 한 달에 한두 번만 기록한 예도 있다. 그러나 분량 면에서는 가장 압도적이다. ‘결미’에는 유배에 대한 소회 등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는데, 서두에 비해 분량이 짧다. ‘해배 노정’과 ‘결미’의 존재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유배인의 해배 여부와 관련이 깊다. 그러나, 일기를 쓴 당사자가 실제로는 유배에서 풀려났으나 그 전에 일기를 중단하는 바람에 해당 일기에는 해배 노정과 결미 부분이 없는 예도 있고, 해배 되지 않은 채 유배지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일기를 마무리 짓고자 결심하고 결미를 기록하여 일기를 마무리한 예도 있다.

이러한 5단계 구성 요소 가운데 본고는 ‘서두’ 부분의 내용과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서두에 어떤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에 대한 언급은 유배일기의 서두 부분에서 빠지지 않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유배 노정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시작되는 유배일기는 없다. 그리고 작품에 따라 간략하게만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을 밝힌 유형과 여러 증언과 자료들을 보충하여 상세하게 밝힌 유형으로 나뉜다. 유배된 이유와 유배지에 대한 정보만을 밝히고 곧 유배 노정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간략한 유형에 포함된다.

임인년(1602) 4월에 장령으로서 기축(己丑)의 옥사에 거스르는 말을 주창한 것 때문에 벼슬을 박탈하여 광주로 내치는 성치가 내려졌고, 대계(臺啓)로 인해 갑자기 공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sup>6)</sup>(《公山日記》<sup>7)</sup>)

6) 壬寅四月以掌令言己丑冤獄忤 旨黜守光州因臺啓我配公州(조동길, 『可畦 趙翊 先生의 “公山日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342쪽.)

을사년(1725년) 가을에 계림(鷄林)에 사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임인년(1722) 하과(夏課) 때의 일 때문이었다. 경주의 인사로 죄를 받은 이가 8명이었고 영천, 울산 인사들도 면치 못하였다. 나도 임인년 하과에 공적으로 참석한 일이 있어 스스로 모면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행하게도 동도(東都)에 여러 달 구금되어 있었고 북관(北關)에 3년간 귀양 가 있었는데 죽지 않은 것은 천행이었다. 이에 도중에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여 나의 자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sup>8)</sup> (〈泰和堂北征錄〉<sup>9)</sup>)

신축년(1782년) 사월에 집을 서빙고로 이사하였더니 남부 봉사 윤영기가 여가탈입(閭家奪入)이라고 한성부에 무함하여 제보하고, 그로 인하여 본부당상을 좌우로 충동하고 성상에 초기(草記)하니 취리(就理)하였다가 귀양 삼 년 죄로 황해도 수안 땅에 적행을 면치 못하여 수안 읍내에 거주하는 장교 박봉수의 집에 안접하였다. 그런데 열흘이 넘지 못하여 대간 유맹양이 또다시 계사(啓事)하여 백지(白地)에 지원극통(至冤極痛)한 말로 무함하여 수안 도배로는 그 죄가 가볍다 하고 더 멀리 전라도 진도군 금갑도로 원찬(遠竄)하기에 이르렀다.<sup>10)</sup>(〈謫所日記〉<sup>11)</sup>)

- 
- 7) 〈공산일기〉는 선조 35년(1602년)에 己丑獄事에 관련 되어 公州(公山)로 유배 온 可畦 趙翺 선생이 이곳에서의 생활을 일기체로 쓴 글인데 6년간의 생활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조동길(2000), 위의 책, 7쪽.) 인용문은 같은 자료의 102쪽.
- 8) 乙巳秋鷄林士禍起以壬寅夏課時事也慶之人士承罪者八人而永蔚亦不免焉吾亦有壬夏公席之役不欲以免幸累月於東都三年於北關其不死天也茲記道途景色使吾子孫知之(이광희, 장재한 역, 『國譯 泰和堂北征錄 全』, 鶴城李氏 越津派 汝堂門會 鶴城李氏 越津派 汝星門會, 2007, 10쪽.)
- 9) 〈태화당북정록〉은 태화당 이광희(李光熹, 1688~1746)가 을사년(1725) 鷄林士禍에 연루되어 유배지 북관(함경도) 명천으로 가는 과정과 그 곳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이광희, 장재한 역(2007), 위의 책, 3쪽.) 인용문은 같은 자료의 10~11쪽.
- 10) 신축스월의집을서빙고이스흐얏더니남부봉사윤영기가녀가탈입이라고한성부의무함야보호고인흐야본부당상을좌우로충동흐야초기하니취리흐얏다가도삼년죄로황해도수안적행면치못흐야읍내당교박봉수의집의안접흐얀디열흘이넘디못흐야디간죄경타흐야전나도딘도군금갑도로원찬흐기(김희동, 『다시 돌아본 선화자 김약행의 꿈-18세기 조선왕조 黨(政爭)의 외증에서-』, 목민, 2014, 136쪽.)

어찌하여 명도(命途)가 기궁(奇窮)하고 시운(時運)이 비색(否塞)하여 홀연히 11월 초이일에 도헌(都憲)의 한 상소가 극히 망극하다 입이 있어도 발명(發明)하기 어렵고 하숙거릴 곳이 없으니 땅을 두드리고 하늘을 부르짖어 황망히 고당(古堂)에 하직하고 문밖에 나와 처분만 기다리더니 그날 문출하라신 명이 계시나 조정의논과 대간의 상소가 한결같이 그치지 아니하니 심신이 다 죽고 혼백이 비월(飛越)하더니 다행히 성상의 호생지덕이 특별히 한 목숨을 빌려 주셔 전라도 강진현 신지도에 위리하라는 명이 나리시나 진실로 황송하고 진실로 감격하도다 머리를 깨치며 풀을 맺어도 죽히 은혜를 대답지 못하고 털을 뽑아 신을 삼아도 죽히 덕을 갚을 수 없도다<sup>2)</sup>(〈신도일록〉<sup>13)</sup>)

위 인용문을 요약하면 크게 2가지 내용으로 정리된다. ‘유배 사유’가 무엇인지와 ‘유배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유배 사유는 ‘기축 옥사에 거스르는 말을 주창하여’, ‘계림의 사회에 연루되어’, ‘여가탈입하여’, ‘도헌의 상소로 인하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고, 유배지는 각각 공주, 북관, 금갑도, 신지도이다. 유배 사유에 대해 더 장황하고 상세하게 서술할

11) 〈적소일기〉는 선화자 김약행(金若行, 1718~1788)이 진도 금갑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을 기록한 작품이다. 1책 32장의 국문필사본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이승복, 「〈謫所日記〉의 문학적 성격과 가치」, 『고전문학과 교육』 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 91~92쪽.) 인용문은 김희동(2014), 위의 책, 168~169쪽.

12) 엇지호여명도가기궁호고시운이비색호여호련이지월초이일의도헌의한상소가극히망극하다입이잇셔도발명히기어렵고하숙거릴곳이업쓰니짜을쑤다리고하날을부루지저황망이고당의호직호고문밖게나와쳐분만기다리더니그날문출하라신명이계시나도정의논과대간의상소가한결갓치그치지아니하니심신이다죽고혼백이비월하더니다행히성상의호생지덕이특별히한목숨을우이사전라도강진현신지도에위리하라는명이나리시나진실로황송하고진실로감격하도다머리를찌치며풀를미저도독키은혜를대답지못하고털을뽑여신을삼아도독키덕을갹수업도다(본문의 인용문은 동양학연구소 편, 『李世輔時調集(附薪島日錄)』, 단국대출판부, 1985, 1~451쪽의 원문을 필자가 현대어 역한 것이다.)

13) 〈신도일록〉은 경평군 이세보(李世輔, 1832~1895)가 자신의 유배체험을 기록한 일기로 흔치않게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승복, 「〈신도일록〉에 나타난 유배체험이 서술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4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51쪽.)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일기들에는 자세한 사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비록 소략하지만 ‘유배 사유와 유배지’라는 핵심적 정보를 정확하게 명시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유배 사유와 유배지만을 간략하게 기록한 유배일기보다 더 일반적인 유형은 장황하게 유배 사유와 유배지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서두를 구성하는 것이다.

향역(享役)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의 언론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이 그릇되어지고 서로 선동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어 (나는) 점점 망령되고 도리에 어긋난 사람이 되어 버렸다.....와전된 말이 성행하여 점점 잘못되어가니 더욱 심하게 황공하여 몸이 움츠러들었다.....와전된 말이 날이 갈수록 더욱 불어나서 모두 기록할 수가 없었다.(<金若濟 日記><sup>14)</sup>)

‘향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김약제가 효모전 망제(孝慕殿 望祭)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어떤 이유인지 말은 역할을 하지 않았던 일을 가리킨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유배 논의가 일어났던 상황을 여러 날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 관리로서 말은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김약제는 자신을 둘러싼 유배 논의가 다소 과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와전된 말이 성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일기에 연이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의 여론이 점차 악화해 간 정황과 이에 대한 김약제의 당황스럽고 불편한 심사를 엿볼 수 있다. 김약제는 조정의 여론이 본인의 잘못에 비해 과장되고 악의적으로 강조되었다는 것을 일기의 서두에 분명히 밝혔다.

14) <김약제 일기>는 학자이자 관료인 김약제가 몸소 경험한 삶과 문견의 기록으로 그의 나이 37세 되던 1892년 4월7일에 시작되어 1898년 11월 15일에 끝을 맺는다.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권은 환해(宦海)에서의 부침과 유배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다.(김약제, 김동건 외 역, 『淸愚 金若濟 日記』, 태학사, 2020, 5~9쪽.) 인용문은 같은 자료의 23~26쪽.

계축년 이후로 당시 사람들이 폐위되고 유폐된 금융의 일을 주장하였는데, 일이 이미 절박하였다. 우참찬 허균은 김개, 이강으로 하여금 호남과 영남의 무뢰배들을 쫓아 거짓으로 마치 유생인 듯한 자들이 자기 집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잇달아 소장을 올리게 하였다.<sup>15)</sup>(〈北遷日錄〉<sup>16)</sup>)

〈북천일록〉 첫날의 일기는 인목대비 유폐의 배후에는 허균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논의는 대제학 이이첨이 사실 주장한 것으로 허균이 그의 바람을 받들어 분주하게 움직여 이룬 것이다.”<sup>17)</sup>라는 노골적인 언급도 하였다. 이어진 일기에 기록된 유배 사유는 다음과 같다. 폐비와 관련된 논쟁으로 조정이 시끄러워지자, 당시에 조정에서 물러나 있던 전임 대신인 이항복에게 이 일과 관련된 의견을 구하게 되었다. 이항복은 “누가 전하를 위하여 이런 계교를 획책했는지 모르겠사옵니다.……지금 하셔야 할 도리는 순임금의 덕을 본받아 효로써 화합하여 차츰차츰 대비의 노여움을 돌려 자애롭게 하는 것”<sup>18)</sup>이라는 요지로 인목대비 유폐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이이첨과 허균의 무리들은 불같이 일어나 이항복을 무인절도에 위리안치해야 한다고 주장

15) 自癸丑以後，時人主金甯事，事已逼迫，右參贊筠，使金閔李沆，誘聚湖嶺無賴之徒，僞若儒生者，自家供給，相繼投疏。(정충신, 신해진 역주, 『북천일록』, 보고서, 2020년, 149~150쪽.)

16) 〈북천일록〉은 금남군 정충신이 백사 이항복을 수행하며 적은 유배일기이다. 이항복이 광혜군의 인목대비 폐모를 극력 반대하는 헌의(獻議)를 올린 것으로 인하여 죄를 입고 북청으로 유배 가는 길을 직접 따르며 그곳에서의 유배생활을 하는 스승 이항복을 수행하였고 유배지에서 죽은 스승의 유해를 운구해 포천에 안장하기까지(1617년 11월 1일~1618년 8월 7일)의 일기이다.(정충신, 신해진 역주(2020), 위의 책, 3쪽.) 인용문은 같은 자료의 23쪽.

17) 此論，大提學爾瞻實主張。是筠承望奔走以成之。(정충신, 신해진 역주(2020), 위의 책, 151쪽.)

18) 이때 이항복이 올린 상소문의 내용은 1617년 11월 25일자 일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였다. 그들의 요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왕이 처음에는 관직만 삭탈하라고 답하였으나, 그들이 재차 요구하자 점차 ‘고향으로 내쫓아라’,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으로 왕의 비답이 바뀌다가 결국 ‘귀양을 보내라’라고 하기에 이른다. 유배지도 처음의 ‘용강’에서 ‘창성’, ‘경원’ 등 점점 더 멀고 험한 곳으로 바뀌다가 결국 ‘북청’으로 결정되었다. <북천일록>에는 이항복의 유배와 관련된 정황과 유배지가 결정되기까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논의들이 매우 상세하게 여러 날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어사 이인명이 간사한 아전들의 모함으로 좌복에 들어 진주의 진교들을 보내 나를 잡아오게 하였다.…… 마침내 감옥에 들어갔는데 궤사유도 같이 들어갔다. 친구인 박숙연과 벗 이대운 등의 벗들도 모두 안행사 박규수의 무고로 인해 체포되어 유배되는 곤역을 당하였다.……진주와 단성현 인사들 중 줄줄이 구속된 사람을 다 기록할 수도 없다. 사태가 비참함이 초나라의 감옥에 갇힌 역올함이나 한나라의 금고의 화보다 더욱 컸다.<sup>19)</sup>(〈艱貞日錄〉<sup>20)</sup>)

<간정일록>의 시작은 위와 같다. 어사 이인명이 간사한 아전들의 모함에 속아 자신(김령)을 잡아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날도 굶고 잠작스러운데

19) 御史李寅命, 以姦胥胥讒, 入于左腹, 送晉州鎮校推促.…… 逐入圓扉, 士維亦同. 朴友淑然, 李友大允諸益, 皆以按覈使朴珪壽誣告見逮, 方遭刺配之厄.…… 晉丹人士, 拘連見逮者, 不可殫記, 爰象愁慘, 浮於楚獄之怨, 漢錮之禍.(海寄翁 金樞, 오덕훈·심수철 역, 『해기옹 김령의 임자도 유배생활 <艱貞日錄>, <歷代千字文>』, 민속원, 2016, 56~58쪽.)

20) <간정일록>은 경상도 단성현에서 19세기 초·중반을 살았던 김령의 유배일기이다. 김령은 철종 13년(1862) 삼남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된 임술년 농민항쟁의 첫 출발이 되었던 경상도 단성에서의 항쟁을 아들 김인섭과 함께 주도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암행어사 이인명에 의해 진주 진영에 구금되었다가 삼가현으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고 전라도 임자도에서 만 1년간의 유배생활을 하였다.(海寄翁 金樞, 오덕훈·심수철 역(2016), 위의 책, 12~13쪽.) 인용문은 같은 자료의 56~57쪽.

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진주 진영에 구금되었다.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도 체포되어 어사의 문초를 당하였다. 아들 정언도 벌을 면하지 못하였고 김령 자신은 한 달여 후에 잠시 석방되었으나 곧 다시 유배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김령은 그로부터 다시 한 달쯤 뒤에 유배지인 영광 입자도로 출발하였다.

김령이 경상도 단성에서 아들과 함께 항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어사에게 잡혀간 때부터 항쟁에 함께 참여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초를 당하고 유배형을 확정받기까지 대략 두 달의 시간이 걸렸다. 김령을 포함하여 그 주변의 술한 사람들이 잡혀가고 먼 곳으로 유배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 이 두 달간의 일들이 일기 속에는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모함’과 ‘억울함’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또 묻기를, 내가 소를 올리려 할 때 누구와 함께 의논하였으며, 누가 지시하고 부추기었는가. 함께 의논하고 부추긴 사람을 낱말로 사실대로 말하라. 진술하기를, 어떤 일을 막론하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주관하여 맡아 하거늘, 하물며 막중한 소를 써 올리면서 다른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며 누가 그리하도록 시킨다는 말인가. 이렇다면 죄인이 평상시 하는 일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두텁지 못하여, 의심받지 않아야 마땅한 곳에서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당하는 것이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지경에 이른다면, 차라지 잡자기 죽어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sup>21)</sup>(《茲山錄》<sup>22)</sup>)

21) 又問曰汝星將陳疏之時有誰議有誰指嗾乎共議指嗾之人一一直招也供曰無論凡事自己之事自己主之矧乎莫重疏章人誰與議人誰使之此莫非罪人之平日事爲無所信重於世而有此疑人於不當疑之地人生到此寧欲溘然而無知也(박우현, 김형만 역주, 『자산록茲山錄』, 신안문화원, 2016, 자산록 원문 27)

22) <자산록>은 박우현이 1873년 12월 12일 최익현이 부자지간을 이간질했다는 비판과 함께 고종에게는 효계의 도리를 다할 것을 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흑산도에 유배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박우현, 김형만 역주(2016), 위의 책, 12쪽.) 인용문은 같은 자료의 62쪽.

〈자산록〉에 기록된 유배 정황은 다음과 같다. 1873년 10월 26일 최익현의 상소문으로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한다. 논란이 되었던 최익현의 상소문은 국태공을 권신으로 지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최익현이 상소문을 올리자마자 조정은 최익현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측과 최익현을 구원하고자 하는 측으로 나뉘어 들끓었다. 왕이 처음에는 최익현에게 벌을 줄 생각이 없었으나 조정의 논의가 심상치 않아서 결국 제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때 최익현의 처벌을 두고 벌어진 논쟁의 내용이 연이어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박우현도 이 논쟁에 참여하여 글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중형의 만류로 한차례 중단되었다. 그러나 대궐에 화재가 발생하고 민심이 더욱 어수선해지자 박우현은 끝내 상소문을 작성하였다. 이 상소문의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일기에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이 일기에 기록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그 서술 분량이 긴 편에 속한다. 밤을 새워 상소문을 완성한 뒤 하인을 시켜 소장을 승정원에 올리고, 당연히 벌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예상대로 신지도에 충군 정배(充軍 定配)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친우와 친지들이 찾아와 전별하는 와중에 길 떠날 준비를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출발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던 차에 나장이 와서 ‘아직도 귀양길을 서둘러 가지 않고 있다가는 금방 불러들이라는 엄칙(嚴飭)이 있을 것이니 닭이 울기 전에 강을 건너’라고 당부하였다. 곧장 행장을 수습하여 길을 떠났으나 길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의금부 옥에 갇히게 된다.

의금부에서는 박규수 등 40여 인의 위관이 국청을 열고 박우현이 올린 상소문의 내용에 대해 그 죄를 묻는 문초가 이어졌다. 위 인용문의 장면처럼 ‘위관이 묻기름’로 시작하는 문초의 내용과 ‘진술하기름’로 이어지는 박우현의 답변이 일기에는 총 22번이나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sup>23)</sup> 유배일

23) 1873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의 일기는 모두 이러한 문초와 답변의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기 가운데 이처럼 공초의 내용, 즉 국청에서 일어나는 문초와 항변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경우는 드물다. 그뿐만 아니라 형장을 맞는 장면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형장을 맞고 옥에 다시 갇힌 뒤에 박우현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들끼리 의지하며 살았는데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영영 이별하게 되었다며 절망한다. 문초가 끝날 즈음, 한 금리가 와서 다행히 사형에서 한 등급 감하여 흑산도에 정배하라는 명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문초에 대한 기록은 마무리된다.

공초 작성에 대해 비교적 인상적으로 묘사한 또 다른 작품으로 〈감담일기〉를 들 수 있다. 김려는 이 일기에 공초 작성 과정을 특히 생동감 있고 압축적으로 묘사하였다.

조금 있다가 심문장으로 불러 들어갔다. 심문장에는 판서 조심태, 참판 윤필병, 참의 이태영이 방금 자리를 잡고 앉는 참이었다. 이태영이 물었다. “너희 집안이 어떠한 집안이기에 이런 요사스러운 사람과 함께 사귀었느냐?” 나는 대답하였다. “만일 그가 요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찌 함께 사귀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다시 물었다. “너는 무슨 까닭으로 강이천을 시켜서 거짓 고변을 하게 하였느냐?” 나는 강이천을 돌아보며 따지고 들었다. “이천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내가 언제 당신에게 고변을 하게 하였단 말이오?” 그러자 강이천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윤필병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천이 한 말 가운데 고변할 때 너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하였다.” 내가 다시 강이천을 돌아보며, “내가 언제 당신하고 의논했던 말이오?” 하였다니, 이천이 말하였다. “나는 다만 그날 당신하고 만났다고만 하였지, ‘서로 의논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소” 그 말에 이태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상감께서 너를 정배 보내라고 이르셨다.” 이어 서리가 조그마한 흰 종이에 백白 자를 쓴 다음 그 글자 아래에 수결을 받아 가지고 나갔다.<sup>24)</sup> (〈坎窞日記〉)<sup>25)</sup>

24) 未幾招入鞠庭 判書趙心泰參判尹弼秉 參議李泰永 方開坐 泰永問曰 汝家是何如家 而與此妖人相交乎 余曰 若知其妖人 則豈有相知之理 又問曰 汝何故教姜

실제 공초 작성 과정에서 오고 간 말들은 이보다 장황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기 속에는 문답의 핵심적인 내용만이 속도감 있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 일기를 읽는 이들이 공초 작성의 이면에 깔린 내막을 빨리 눈치채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려는 강이천의 유언비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판명되어 유배되었으나, 정작 문초 과정에서는 강이천이 김려와 ‘만났다고 만’ 하였고, ‘서로 의논했다’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려의 무죄를 입증해 주었다. 그런데도 심문장의 관리들은 이미 결정된 형을 확정하고 준비된 공초에 수결을 받아갔다. 이처럼 죄가 정해지고 유배형이 확정되는 과정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억울함 등을 문초 현장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때 나는 김신국이 고변한 사실의 저 과정과 강이천이 잡혀간 소식을 이미 자세히 들었던 터라 마음속으로는 무슨 곡절이 있다고 여겼으나 내 한 몸을 돌이켜 본다면 당초에 털끝만큼도 간여한 일이 없었으므로 조금도 두려운 생각은 나지 않았다.…… 이미 어제 이 사건에 대한 문건이 다 꾸며져서 임금에게로 올라갔는데 오늘 아침에 그것이 비준되어 내려왔다. 그런데도 나를 불러 들인 것은 귀양을 보내기 때문에 자복서를 받으려 해서였다.<sup>25)</sup>(〈坎窟日記〉)<sup>27)</sup>

---

彝天告變乎 余顧彝天曰 彝天在此吾何嘗教汝告變也 彝天未及對 弼秉曰 彝天言內 告變時與汝相議 余又吾何嘗與汝相議耶 彝天曰 吾只言其日與汝相逢 未嘗言相議二字 泰永曰 自上命汝定配 書吏仍以小片白紙書白字 字下受押而去 (김려,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855~856쪽.)

25) 〈감담일기〉는 김려(金鑣, 1766~1821)가 1797년 강이천 사건의 연루자로 취조를 받고 부령으로 유배되어 가는 과정을 쓴 일기체 기행문이다.(김려, 오희복 역(2006), 위의 책, 832쪽.) 인용문은 같은 자료의 601~602쪽.

26) 時金蓋國告變顛末 姜彝天就捕消息 已爲詳聞 故心知其必有委折 而回顧一身 初無一毫干涉 故了無怖心……蓋昨日具獄案入啓 今朝已爲判下 而招余入庭者 以發配之故欲受僇音也(김려, 오희복 옮김(2006), 위의 책, 855~856쪽.)

27) 인용문은 김려, 오희복 역(2006), 위의 책, 597쪽.

위의 장면을 보면 김려는 자신의 결백과 무고가 드러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결국 형이 확정되자, 자신의 죄는 문초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일종의 형식적 절차로서 문초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분명히 기록한 것이다. 즉, 자기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일기에 기록하였다.

이때 증조할아버지 추하에 계시다가 승일상녀(乘駟上來)하셔 국은의 망극함을 갓잡기로 생각하셔 묵하의 큰일로 17일 새벽에 백 번 절하고 상소하시니.<sup>28)</sup>(〈南行錄〉<sup>29)</sup>)

〈남행록〉은 유배형이 내려지게 된 발단이 된 상소문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기에 기록된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영조 51년(1775년) 11월 17일에 할아버지 박성원이 상소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 큰 논란이 발생했다. 영조는 이날 박성원의 상소문에 격노하여 곧바로 유배형을 내렸다. 이때 올린 박성원의 상소문이 일기에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박성원의 상소문과 유배 사유 등에 대해서 실록에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있으나, 상소문의 내용은 실록보다 〈남행록〉의 기록이 더 상세하다. 실록에는 ‘대사간 박성원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sup>30)</sup>이라고 하며 상소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28) 이때의왕부취추하의계시다가승일상녀하셔국은의망극함을갓잡기로생각하셔묵하의큰일노십칠일새벽의백번절하고상소하시니(본문의 인용문은 〈南行錄〉(규장각 소장본-가람 고, 915.1 n15)의 원문을 필자가 현대어 역한 것이다.)

29) 〈남행록〉은 대사간이던 박성원(朴盛源, 1771~1779)이 남강로의 신원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일을 손자인 박조수(朴祖壽, 1756~1820)가 기록한 것이다.(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47~48쪽.)

30) 大司諫朴盛源上疏, 略曰(『조선왕조실록』, 영조 51년(1775) 11월 17일)

있는데, <남행록>에는 상소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소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사관 남강로가 조정의 문제에 대해 비록 다소 과격한 언사로 상소문을 올렸을지언정 대관들이 그를 구하지 않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잘못된 일이므로, 왕이 이를 누우치시고 남강로의 죽음을 위로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소문은 “신이 죽기를 무릅쓰고 이로써 아뢰노이다.”로 끝나는데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소문의 상투적인 문구로만 볼 수는 없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박상원이 상소문을 작성할 당시 세력이 정후겸 등이 연관 남강로가 자신들을 문제 삼는 상소문을 올리자 남강로를 죽음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가는 위험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박상원의 자식들과 친지들이 박우현이 상소문 쓰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상소문을 올렸고 마침내 화를 당했다.

이처럼 서두의 많은 부분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설명, 상소문 전문, 공초 작성 과정이나 문초 내용, 유배형 결정을 두고 벌어진 조정의 논쟁 등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배일기의 기록자인 유배인은 유배의 억울함, 자신의 무고함, 유배를 대하는 당당한 태도 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유배일기가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문체인 ‘일기’에 속하는 글이지만 자기 만족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후손들을 포함한 독자를 의식한 공적 발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면이기도 하다.

## 2) 출사(出仕) 내력

신해년(1851년) 가을 칠월에 순원성모(純元王后) 하교를 반자와 외람되게 근종(近宗) 반열에 참여(參預)하니 이때는 성상(철종) 즉위하신 지 삼 년일러라. 품질(稟質)이 노박하고 재식(才識)이 천단(擅斷)하여 만 가지로 지척지지(咫尺之地)에 합당치 못하나 편벽되어 우리 성상의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택을

힘입어 다행히 큰 죄를 면하니 감히 동동축축(洞洞屬屬)하여 조심하였?말리아  
 나라 산 같은 은혜와 바다 같으신 덕을 어찌 잠간이나 잊으리오<sup>31)</sup>(〈신도일록〉)

〈신도일록〉의 첫 장면은 이세보가 출사하게 된 내력을 간략히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순원성모의 하교를 받아 외람되게 조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질이 부족한데도 임금의 은택으로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증조할아버지 계사년(1773) 9월에 돌아가시니 할아버지 삼년상을 예로 마치  
 시고 세상에 뜻이 없으셔 추하(楸下)에 누워 계시더니 이때 선대왕(영조)께서  
 은전이 지중하오셔 오히려 삼 년을 부르지 아니하신 신하를 생각하오시고 동월  
 십이일 ?에 이원정으로 하여금 역마로 부르시니<sup>32)</sup>(〈南行錄〉)

『남행록』의 첫 장면은 박조수의 할아버지 박성원의 출사 내력을 언급하  
 는 것으로 시작한다. 박성원이 조부의 삼년상을 마치느라 조정에서 물러나  
 있었는데 임금이 잊지 않고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임금께서 몸소 태학에 나오시어 알성시를 참관하시었다. 이 사람이 변변치  
 못한 재주로 단선으로 문과에 뽑히게 되었다.……경사(京師)에 들어가, 곧 괴원

31) 세지신히지추칠월에순원성모하교를밧조와외람이근동반년의참에하니이씨는성상즉  
 위하신지삼년일너라품질이노박하고지식이천단하오면만가지로지척지지의합당지못하  
 나면변되어우리성상의버리지아니하시는은택을힘입어다행이큰되를먼리나감히동동  
 축축하오도심하엇?말리아나라되갓흔은혜와바다갓하신덕을엇지잠간이나이즈리오.  
 (인용문은 동양학연구소 편, 『李世輔時調集(附薪島日錄)』(단국대출판부, 1985,  
 323쪽.)을 필자가 현대어 역한 것이다.)

32) 증왕고계사구월의기세하시니왕부쥬삼상을네로모치고세상의쓰지업셔쥬하의누  
 워겨오시더니이때선대왕겨오셔은전이지동하오셔오히려삼년을부르지아니신신하를  
 싱각하오시고동월십이일?의이원정을하시어역마로부르시니(본문의 인용문은 〈南  
 行錄〉(규장각 소장본-가람 고, 915.1 n15)의 원문을 필자가 현대어 역한 것이다.)

(槐院)에 예속되어 부정자(副正字)가 되었다.……진하(陳賀)를 올릴 때에 치사관(致詞官)에 제수되고, 그 시상(施賞)으로 가자되어 품계가 육품으로 올랐다.……감찰 수망에 들어 몽점을 받고, 오십 삼번째에 이르러, 이윽고 좌정언 말망(末望)에 들어 또 몽점을 받았다. 가만히 생각건대, 내가 불행하여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이제 다행히 군부를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연애(涓埃)같은 작은 힘이나마 모두 바치는데 다하지 않음이 없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물며 언관의 직책을 맡고 보니, 곧 시폐(時弊)를 낱날이 들어 밝히어 고하려 하나 스스로 돌아보건대 재주와 식견이 미치지 못하고.……33) (〈茲山錄〉)

〈자산록〉의 서두에도 ‘문과 급제, 승문원에서의 첫 벼슬살이, 사간원로의 이동, 9품에서 시작해 6품까지 승진’ 등 박우현의 출사 이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다. 특히 사간원 6품 벼슬에 제수되었을 때 언관으로서 느낀 책임감과 부담도 솔직히 기술하였다.

이처럼 몇 편의 유배일기에는 서두에 유배와는 일견 관련 없어 보이는 출사 이력을 간략하게나마 서술한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그 분량이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일기의 첫 장면이므로 기록의 당사자가 매우 고심하여 배치한 내용일 것임은 분명하다. 위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보잘것없는 재주(품질이 노박하고 재식이 천단, 변변치 못한 재주, 연애 같은 작은 힘)를 가진, 혹은 임금의 눈에서 떨어져 있었던 유배인이 임금의 덕(은택, 산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덕, 은전)으로 벼슬살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기의 능력에 대한 겸사(謙辭)가 임금의 덕을 부각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 공통으로 발견되는 서술 기법이다.

이처럼 서두의 서술에서는 유배를 가게 된 것과 관련하여 임금에 대한

33) 上親臨太學謁聖試士余以菲才忝單選……入京師即隸槐院爲副正字……陳賀除致仕官出陸……入監察首望蒙 點至五十三度尋入左正言末望又蒙 恩點竊念余以險巖早背嚴顏今幸得事君父圖效涓埃宜無所不盡況職當言官即欲歷論時弊而自顧才識淺劣(박우현, 김형만 역주(2016), 앞의 책, 자산록 원문 7~8) 本문의 인용문은 같은 자료, 40~42쪽.

원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유배를 결정짓고 유배의 빌미를 제공한 조정의 다른 관료들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질타나 부정적 언급은 일기의 이후 기록들에서 간혹 발견되기도 하지만, 당연하게도 임금에 대한 원망은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에 대한 서술과 마찬가지로 유배일기가 비록 ‘일기’라는 사적 기록물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공적 발화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두에 배치한 감군은(感君恩)의 발화는 일차적으로는 일기를 직접적으로 소장하고 전승할 가문 내부의 구성원들을, 더 나아가서는 가문 외부의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독자’를 의식한 것이다.

### 3) 유배 출발 직전의 혼란

유배일기에 기록된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유배인들은 대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곤란한 상태에서 유배지를 향해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시 발행하려 하되 반전을 변통할 수 없어 노상에 두류하니 망조(罔措)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훈전과 심부름할 어린 아이를 누구를 향하여 빌어보리오 한 지광이와 한 짚신으로 떠나고자 하더니<sup>34)</sup>(〈신도일록〉)

조부 금침만 수습하여 차리나 행낭은 주변이 없으니 민망터라. 내 또한 의복이 얹혀 부인이 본집에 있고 미처 통할 길 없어 의복도 가져오지 못하니 그때 창황한 경색을 가히 알리라. ……?외지친이 이 소문을 듣고 다 모여 서로 손을 잡고 울음빛뿐일리라. 어느덧 금부도사 홍익열이 문에 이르러 재촉이 불같으니

34) 즉시발행하려 하되 반전을 변통할수없서노상의두류하니망도흐믄 마음을이기지못하고……. 훈전적동을누를향하여비러보리오한집광이와한집신으로떠나고져하더니(본문의 인용문은 동양학연구소 편, 『李世輔時調集(附薪島日錄)』, 단국대출판부, 1985, 1~451쪽의 원문을 필자가 현대어 역한 것이다.)

어이 일신들 지체하리오.<sup>35)</sup>(〈南行錄〉)

유배지가 결정된 직후 유배지를 향해 출발할 때의 장면이다. 미처 행장을 차릴 여유도 없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가까운 사람들이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에 어찌할 줄 몰라 울고 위로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솔직하게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다. 유배지로 출발하는 모습은 마치 영웅이 막 험난한 모험의 길에 첫발을 내딛는 것 같은 긴장과 혼돈,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실제로도 경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 현직 관리였던 유배인들은 촘촘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런 정황 묘사에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유배의 충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유배길을 떠나는 백사공을 위해 제사를 베푸는데 좌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날씨가 매우 추워 가야 할 길이 암담하였다. 도성의 사대부와 하인에 이르기까지 전송하러 나온 자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길가에서 보는 이들도 백사공을 알거나 모르거나 할 것 없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sup>36)</sup>(〈北遷日錄〉)

35) 이옥고간원하인이웃말(?)플헤치고??으로돌녀와닐오디나라하비답을다시흐사혹산도로권극하야삼베크라하여겨시다 흐니드르대늘나오몰어이다이그리오조부금침만슈습혀출이나형낭은유변이업스니민망터라내또흐의복이박착이로되 실인이본집의잇고미쳐통홀길업서의복도가져오디못흐니그때창황호경식을가하일너라문한이거의되 앓는고로형장을슈습혀여가지고창황이?으로도도가니라?외지친이이소문을듯고다모드여서로손을잡고우름빗분일너리어는덧금부도스홍의닐이문의니르러지촉이불호니어이일신들지완하리오(본문의 인용문은 〈南行錄〉(규장각 소장본-가람 고, 915.1 n15)의 원문을 필자가 현대어 역한 것이다.)

36) 設祖餞行, 一座垂涕. ……日氣極寒, 行路慘慘. 都中士夫輿僮之來送者, 不記其數. 道傍觀者, 無論知與不知, 無不掩袂嗟傷.(정충신, 신해진 역주(2020), 앞의 책, 170~171쪽.) 본문의 인용문은 같은 자료 41~42쪽.

한편, 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배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길가에 나와 슬퍼하며 전별하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고행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모험이 시작됨을 극적으로 알리는 듯하다. <북천일록>처럼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는 유배객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이 길을 가듯 매우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문안하고 선물을 주었다는 기록도 자주 발견된다. 심지어 찾아온 손님들을 맞느라 출발이 지연되는 일도 있다. 주목할 점은 유배객을 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전별했다는 점이다. 이는 유배객이 ‘죄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며 유배지를 향해 출발하는 유배인의 모습에서 ‘죄인’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배지로 출발할 때의 상황을 묘사한 서두의 내용도 앞서 살펴보았던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 ‘출사 내력’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기록자 자신만을 위한 자족적인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유배일기의 주인공인 유배객 본인은 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무고하게 벌을 받게 된 희생자라는 사실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서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 3. 결론

서두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 ‘출사 내력’, ‘유배 출발 직전의 혼란’이 그것이다.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은 유배객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설명, 상소문 내용, 공초 작성 과정이나 문초 장면, 유배형 결정을 두고 벌어진 조정의 논쟁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고, ‘출사 내력’은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졌거나

임금의 눈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유배인이 임금의 은덕으로 벼슬살이 하게 되었다는 요지로 서술되어 있다. ‘유배 출발 직전의 혼란’은 경황없는 출발 전의 상황과 유배객을 동정하는 시선에 관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서두의 내용들을 통해 유배일기가 겉으로는 일기라는 사적 기록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독자를 강하게 의식한 공적 발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배 사유와 처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서술 속에 유배의 부당함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재주와 지위를 강조하면서 임금의 은혜로 벼슬을 하게 되었음을 반복해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과 충성을 동시에 부각한다. 아울러 유배지로 떠나는 길에 물려든 배웅 인파와 눈물로 전별하는 군중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은 유배객이 ‘죄인’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동정과 연민을 받는 희생자임을 간접적으로 독자에게 설득하려는 장치이다.

결국 서두의 내용은 기록자 자신만을 위한 자족적 회고라기보다 후손과 가문 외부의 독자를 상정한 가운데 유배의 억울함과 자기 정당성을 변론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반한 서술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유배일기 서두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배객의 ‘무고함’, ‘죄 없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배일기는 ‘일기’라는 사적인 문체에 속하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한 공적 발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南行錄〉(규장각 소장본-가람 고, 915.1 n15)

- 김려,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1~902쪽.
- 김약제, 김동건 외 역, 『淸愚 金若濟 日記』, 태학사, 2020, 1~621쪽.
- 김희동, 『다시 돌아본 선화자 김약행의 꿈-18세기 조선왕조 黨(政爭)의 와중에 서-』, 목민, 2014, 168~169쪽.
- 동양학연구소 편, 『李世輔時調集(附薪島日錄)』, 단국대출판부, 1985, 1~451쪽.
- 박우현, 김형만 역주, 『자산록茲山錄』, 신안문화원, 2016, 1~222쪽.
- 이광희, 장재한 역, 『國譯 泰和堂北征錄 全』, 鶴城李氏 越津派 汝堂門會 鶴城李氏 越津派 汝星門會, 2007, 1~324쪽.
- 정충신, 신해진 역주, 『북천일록』, 보고사, 2020, 1~374쪽.
- 조동길, 『可畦 趙翊 先生の “公山日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1~342쪽.
- 海壽翁 金樞, 오덕훈·심수철 역, 『해기옹 김령의 임자도 유배생활 〈艱日錄〉, 〈歷代千字文〉』, 민속원, 2016, 1~502쪽.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 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517~533쪽.
- 김정운, 「조선시대 일기자료와 연구동향」, 『영남학』 72, 영남문화연구원, 2020, 7~36쪽.
-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 쓰기」, 『한국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73~118쪽.
- 이승복, 「〈謫所日記〉의 문학적 성격과 가치」, 『고전문학과 교육』 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3, 91~114쪽.
- \_\_\_\_\_, 「〈신도일록〉에 나타난 유배체험이 서술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4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9, 149~189쪽.
-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1~303쪽.
- 최은주, 「조선조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2009, 5~40쪽.
- \_\_\_\_\_,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배일기 자료의 현황과 활용 가치」, 『안동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393~364쪽.
-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763~910쪽.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접속일자: 2025.12.20.

##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the Opening Section of Exile Diary

Cho, Su-mi

Exile diaries are texts that come into being through the diarist's urge to speak and to record—an impulse triggered by the extraordinary event of banishment. They typically display a fixed five-stage structure: “opening - journey to the place of exile - life at the place of exile - journey upon release from exile - closing” Among these, the opening is the section in which the intent and purpose of composing an exile diary are most clearly revealed, including the circumstances of the banishment and the writer's attitude toward it. For this reason, elucidating the opening is crucial to clarifying the nature of the exile diary as a record.

The content that appears in the opening can be summarized in three main points. First, the “reasons for exile and the process of punishment” exposes political intrigue and unjust procedures, while foregrounding the exile's innocence and sense of grievance. Second, this is supplemented by a brief “account of one's career in office,” recalling success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ervice in official posts, and the sovereign's favors, thereby emphasizing that the exile continues to maintain loyalty to the king. Third, scenes of confusion—being forced to depart before even completing preparations once the place of exile has been decided—and tearful farewells from family and acquaintances dramatize the very beginning of exile, portraying the banished person not as a criminal but as someone who receives the community's sympathy and solidarity.

In sum, the opening is always organized around the central axis of ① the reasons for exile and the process of punishment, combined with ② an account of one's official career and ③ the turmoil just before departure for exile. Through this structure, the exile diary—despite its outward appearance as a private diary—can be understood as the product

of writing that presupposes readers (including descendants), and as a work that strategically narrates the exile's self-justification.

**Key Words** exile diary, five-part structure, opening section, reasons for exile and the process of punishment, an account of one's official career, the turmoil just before departure for exile

논문투고일: 2026.01.15. 심사완료일: 2026.02.03. 게재확정일: 2026.02.05.
--